동국대 부설연구소 7개로 통합

불교문화연구원등 체계화로 기능 강화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지난달말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권기종) 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소장 문명대) 선학연구소(소장 현각스님)를 불교문화연구원으로 통합하는 등 22개 부속연구소를 7개로 통합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번 연구소 통합·개편은 지난 3월부터 진행된 것으로 연구분야나 기능이 유사한 연구소를 통합하여 집중화 체계화 조직화함으로써 특성화된 연구조직형성과 공동연구를 통한 연구역량의 극대화를 위해 이뤄졌다.

특히 통합되는 불교문화연구원은 연구원내에 불교문화연구부 불교미술문화재연구부 선학연구부를 두게 돼 공동연구를 통한 불교학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연구부의 한 관계자는 "그간 연구활동의 저조, 교외 연구프로젝트 선정률 저조 등 그간 연구소가 안고 있던 많은 문제점이 이번 개편을 통해 어느정도 극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각연구소 관계자들의 인사문제와 예산 배분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걸려 있어 1~2년 운영과정을 지켜보자는 주장도 적지 않다.

새로 통합된 연구원은 △불교문화연구원 △사회과학연구원 △경제·경영연구원 △교육연구원 △자연과학연구원 △산업기술연구원 등 6개이며 △멀티미디어종합연구소가 신설되고 경주캠퍼스의 한의과대학부설한의학연구소가 한의학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창종정신 되살려 종단쇄신하자"

지난달 29일 태고종 원로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단 화합과 쇄신에 전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안덕암스님의 초청형식으로 마련된 이 자리에는 박서봉총무원장, 홍인곡 장벽응 박혜륜 차동월 박금봉 이석천스님 등 태고종 원로스님 10여명이 모였다.

btn 기업참여 유도 '활로 모색'

불자경영인 반응 미지근…"실업인회 구성필요" 의견도

정부가 지난달 28일 '새방송법'을 입법예고한 이후 불자기업의 btn 참여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전의 방송법은 기업의 최대주식 보유지분을 30%로 한정했으나 새방송법은 보유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것이 주된 내용. 때문에 불교텔레비전도 활로모색을 위해 불자기업인들을 적극 끌어안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불교텔레비전은 이미 지난 2차주식공모때 대표적인 불자기업인 쌍용그룹의 참여를 검토하고 관계자를 통해 의사타진을 했으나 쌍용측의 적극적인 참여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교텔레비전의 한 관계자는 "1·2차 주식공모시 불자기업인을 상대로 참여여부를 타진해 봤지만 우리나라 기업현실상 대부분의 불자기업인들은 종교방송의 참여를 꺼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차원이 아닌 개인적 참여나 불교실업인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가지고 종단차원에서 불자기업인들을 유치하면 불자기업의 참여는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금년초 본지 조사에 의하면 쌍용, 한진, 금호, 효성, 동국, 극동, 한신, 삼양, 한일, 건영, 해태, 한보 등의 그룹총수들이 불자들이며 불자기업인들은 기독교 기업인들과는 달리 불사참여와 개인신행생활에만 주력하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자기업의 btn 경영참여는 안정적인 재정속에 보다 질높은 포교방송을 만들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영상포교매체가 경쟁적인 방송시장에서 살아남기위한 활로모색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원우 기자

◇정부의 새 방송법 입법예고 이후 불교TV 경영에 대한 불자기업인 참여가 교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TV 신행상담' 진행장면.

방송가소식

청주 BBS 개국연기

청사 내년말 완공 예정

당초 내년초파일 예정됐던 청주불교방송의 개국이 내년말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불교방송은 지난달 말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에 5백여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청사를 신축키로 해 건물이 완공되는 '내년말 개국'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구 불교방송은 6일 대구지역 실업인들과 환담을 나누고 권선문을 사찰 및 단체에 보낸데 이어 불방 추진내용을 담은 소식지를 이달안에 만들어 발송키로 했다. 대구지역의 방송국 청사로 진각회관 7·8층이 논의되고 있으며 내년 초파일 목표로 개국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BBS사장 정치인 배제

조계종 118회 종회 결의

조계종 118회 종회는 지난달 29일 불교방송 사장선임과 관련 "신심있고 각종단과 화합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과 방송인으로 하고 정치인은 배제한다"는 결의를 통과하고 건의서를 불교방송o 사회에 전달키로 했다.

한편 불교방송 사장직대 종하스님은 지난 4일 강한필 전무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이에앞서 종하사장직대는 지난달 29일에도 "지난 18차 이사회 결정사항이었던 '8월말까지의 3인 정리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지라"고 말하며 권고사직을 촉구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강한필 전무는 "10월말까지 한시적이고 3인 문제에만 국한된 권한을 받아 사장직대를 맡은 지난 19차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위배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회관건립 축원법회

불자예술인 연합회

대한불자예술인연합회(준비위원장 박규채) 창립총회 및 예술인 회관건립 불사 축원법회가 지난달 30일 양천구 본각사 내에서 열렸다.

탤런트, 영화배우, 코미디언, 가수를 비롯한 음악인, 미술인 등을 총망라 한다는 계획아래 창립된 대한불자예술인연합회는 이날 행사를 계기로 숙원사업이었던 예술인 회관건립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축원법회에 이어 2부에서는 코미디언 최영준씨의 사회로 남진, 김국환, 김흥국, 남궁랑, 이유라씨 등이 출연 불자연예인 자선공연 및 놀이한마당이 펼쳐졌다.

'btn 자원봉사단 27일 발대식

불교텔레비전 자원봉사단 발대식이 오는 27일 오후 3시 마포 석불사 강당에서 열린다.

불교텔레비전 자원봉사요원은 4일 현재까지 1백6명의 불자가 참가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btn 프로참여와 각종 홍보업무의 보조양로원 방문등 봉사활동을 하게된다.

'한글 경전 사업' 조명

btn 한글날 특집 방송

불교텔레비전은 9일 한글날 특집좌담 '경전 한글화사업 어디까지 왔나'(11:10~12:00)를 방송했다.

불교의 뿌리내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역경사업의 어제와 오늘을 되짚어보는 프로로 한글판 불교사전 한글대장경 등 경전의 한글화 성과와 가치를 조명하고 한글 경전시대를 진단하는 프로. 정병조교수의 사회로 권기종교수, 월운스님, 박경훈씨가 출연했다.

종합불교회관 기공

16일 천태종 삼양사

천태종 밀양 삼양사(주지 월장스님)는 오는 16일 종합불교회관 기공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종단의 숙원사업인 종합불교회관은 총 7백여평 5층규모로 대웅전, 어린이 집, 종무소, 식당 등을 비롯 부대시설을 갖추고 오는 97년 1차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주지 월장스님은 "모든 천태불자의 숙원사업인 종합불교회관 불사가 원만하게 회향되면 밀양지역 불교포교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구룡사에 보드가야 보리수묘목 기증

인도 U.P주 미야와티 주지사

"한국에 부처님 가르침이 가득하길"

"고요한 아침의 나라이자 동양의 불교국가인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5일 서울구룡사에서 부처님이 성도한 보드가야의 보리수 묘목을 기증한 인도 U.P주 마야와티 주지사(36세)는 "부처님은 평화의 전달자"라며 "보리수와 함께 한국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신도 불자라고 소개한 마야와티 주지사는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인연의 소중함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다"고 했다. 마야와티 주지사는 "U.P주는 부처님이 처음 법문을 설한 녹야원과 열반지 구시나가라가 있는 불교성지다"며 "한국의 불자들이 성지순례를 통해 신심을 돈독히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엽〉

목탁소리

조계종의 재정혁신

이경숙 〈취재1부 차장〉

조계종이 지난달 27일 '사찰등급 배정에 관한 시행령(안)'을 발표하며 재정행정의 일대 혁신에 나섰다.

지금까지는 지난 81년 제정된 '사찰등급 조정규정'에 의해 분담금을 배정해 왔다. 5년마다 재조정하게 되어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사찰변화나 재정여건이 반영안돼 분담금에 대한 구설수가 많았고 납부율도 저조했다.

심지어는 로비(?)에 따라 분담금이 깎인다거나 함(?)있는 사찰은 내지 않고도 큰소리 쳐 왔던 것이 작금까지의 현실이다. 9일부터 실시되는 본사를 비롯 주요사찰의 재정파악이 완료되면 이 결과에 의거해 사찰규모 입지조건 환경 등을 고려 본사는 21개등급, 말사는 30개등급으로 세분화된다.

조계종은 사찰등급을 2년마다 재조정해 제도가 정착을 이루게 되면 일반분담금의 세수이익이 최소로 잡더라도 금년 예산의 2~3배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에 차 있다.

그렇게되면 예산부족으로 쩔쩔매는 교육·포교등 종단의 목적사업에 한층 매진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종단관계자들의 낙관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행하는 쪽이나 이를 받아들이는 쪽이 구태의연한 관행을 버리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

지난 8월 사찰재정조사때 일부 사찰에서는 수입장부가 전혀 없거나 영수증에 맞춰 수입을 잡는다거나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종단의 한 관계자는 "아직도 많은 스님들이 절에 들어온 시주가 '공금'이란 생각을 못한다"고 개탄한다. 어떻게든 불사에 쓰면 되는거지 하는 사고방식이나 돈이 있으면 막 쓰고 없으면 말고 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조계종은 사찰등급배정에 관한 시행령이 종단행정쇄신의 단초를 여는 시금석으로 여기고 있다.

'인사와 재정'이 개혁 완수의 관건임을 누구도 부인 못한다. 투명하고 형평성있는 재정행정과 합리적이고 안정된 인사운용을 기대한다.

방송 하일라이트

btn ch32

해외 입양아 대책은

TV신행상담 (12일 11시 10분~12시) 해외 입양아 수출국 세계1위.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 시간에는 버려지는 아이들의 바람직한 입양 및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불교적 시각에서 다루어 본다

동국병원 이동식 원장

btn특강 (12일 12시 30분~1시20분) 동국병원 이동식원장을 초대하여 한국인의 잘못된 정신세계와 불교의 사상을 접목해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작곡가 최영철씨 신행

나의 삶 나의 불교 (13일 11:10~12:00) 삼귀의, 사홍서원, 찬불가의 작곡가 최영철씨를 초대하여 그의 인생에서 불교의 의미와 생활불교를 들어본다.

승려시인 되고픈 중학생

우리도 부처님같이 (14일 10:10~11:10)부모없이 자랐지만 꿋꿋하게 부처님 법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승려시인이 되고픈 아이 이민진 학생(서라벌여중 3년)의 살아가는 모습이 소개된다.

BBS FM 101.9MHz(서울) FM 89.9MHz(부산) FM 89.7MHz(광주)

법현스님 컴퓨터 상담

살며 생각하며 (12일 23:10~24:00)컴퓨터 통신과 전화연결을 통해 우리주변의 이야기를 법현스님과 나누어 본다. 참여신청전화 705~5555

만권스님 유마경 강의

경전공부 (13일 오전 6시 5분~6시 25분) 유마경의 구조와 그 사상에 대해서 대구 대승원 만권스님이 강의.

심리학으로 보는 시사

생방송 천수천안 (14일 16:10~16:40) 이경훈 심리학 박사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코너를 통해 한주간의 시사문제를 심리학적으로 풀어본다.

'트롯트 한마당' 진행

백팔가요 (15일 오후12시 20분~1시 55분) 일요스페셜 '트롯트 한마당'을 통해 따뜻한 정이 흐르는 전통 트롯트의 향수를 느껴본다.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 소식 •지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성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지양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그룹으로 周易 강의합니다

易은 훌륭한 철학서인 동시에 占書이기도 한데 소리에 응하는 메아리처럼 미래에 야기될 사태를 정확히 예고하는 無上의 인식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정:3개월
전화:(02) 723-5665
※지방도 출장지도합니다.

노고당 733-8743
지방은 조각하여 우송하겠습니다

공장부지 급매

■위치: 화성군 남양면 소재
■평수: 약 4천평 정도

연락처
0339-356-8383~5
011-278-0469

연꽃잉어화 -전문작품-

연꽃잉어화는 옛부터 집안의 생기와 영험의 활기를 가져오는 길화로 전해오는 바 성동길을 주는 산작품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내외 벽화·병풍 및 액자화 작품
●불사용작품(作品)은 주문에 의하여 봉사가로 특별 작품해드립니다.
시내 지방 외국 어디나 그림만 또는 표구작품을 해드립니다
우만(宇滿)화실
서울 용산구 청파1가동 173-1 전화 (02)3273-0081
온라인 국민은행 남영지점 822-24-0171-328(우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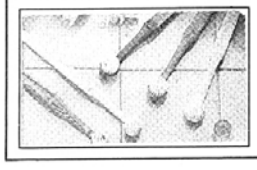
오직 일념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조각의 명문 동양석재
●일찍이 홍익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전통 불교문화 창달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작품 제작을 일념으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사오니
●대덕 스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 바랍니다.
조각가 이규동 대표 이규영 합장
동양석재 주간:(0357)541-4705 야간:(0351)847-2001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6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저희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사무대중에서는 전화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본사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국내 최대 범종주조사 聖鍾社 대표 元光植(梵山)합장 ☎(02)733-6141(서울사무소) ☎(0331)283-2083(공장)

칫솔의 기술혁신 국제 특허품



Circle-B® 회전칫솔
좌우로만 칫솔질하세요. 상하 또는 돌려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판매도 합니다.
5개=12,500원 10개=24,000원
■온라인 농협역삼동지점 096-01-239051(서울상사)
■전화 (02)556-3076~7 ■팩스 (02)556-3078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8월 검정고시 국졸·중졸·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한글반·재수생·직장인·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쉽게 풀이된 해설 「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학교수업식 「강의 녹음」 학습
대학 졸업과정	⊙철저한 1:1 「담임 관리제」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축 신영희(72세, 할머니):中·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中·高·大과정(36개월)

■특전: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5년전원졸업목표➡(영·수)「비디오가정교사」특별제공(개별지도용)
철저한 학습관리!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두고두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희망이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경열(남, 27세)드림-

학사학위취득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해운항만청별관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써비스 080-023-4600